

멕시코: 대위기와 대응책의 부재

스벤야 블랑케*

멕시코 경제의 심각한 대미 의존성으로 인하여 멕시코에 미치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력은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 투자와 수출의 감소는 멕시코 북부 지방 경제에 타격을 입혔고, 해외송금의 감소는 남부 지방의 빈곤 부문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애매한 것이었다. 즉, 정부는 여러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처럼 부분적으로만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힘든 경제 상황을 뛰어 넘어, 낮은 세율이라든지 원유판매액에 대한 높은 의존을 등과 같이, 만약 제거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의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어: crisis/ economía/ desarrollo/ México; 위기/ 경제/ 발전/ 멕시코

극심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멕시코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그 어느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강한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멕시코는 최근 15년 사이 가장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1994년의 데킬라 위기와는 다르게, 이번 경기 침체는 금융 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위기는 사회적으로 증대한 경제위기의 형태로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 및 산업 활동, 생산 활동 분야의 부진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노동시장, 그리고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모든 노동 관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업, 비공식부문의 고용, 그리고 불완전고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멕시코의 민간부문의 사회 보장제도가 할 수 있는 미국 발 송금은 1990년대에 관련 통계가 실시된 이래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내었다. 충분한 국가적 안정망의 결여와 소득의 감소, 식료품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기의 부진은 특히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계층, 중산층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경제가 신속히 반응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느끼는 위기는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대응책은 우유부단한 것이었다.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당장의 결과를 완화시키고자, 그리고 경기침체에

* 2009년 10월까지 멕시코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로 활동.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 분야에서 보충한 장기 발전 계획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안정화를 위한 완벽한 정책을 수용하는 것 대신 제한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타 분야에서 정부가 행한 조치와는 상반된다. 마약세력의 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조치가 취해진 지 3년이 되어가고, 신종플루의 출현에 대하여 초기의 불확실성 이후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다.

중간선거를 의식한 여당은 특히 폭력조직과 마약범죄단체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선거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경제와 유지능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단면적인 정책만이 제시되었으며, 결국 여당인 국민행동당(PAN)의 패배를 겨우 막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¹⁾ 불과 몇 주 후,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금융 정책안을 다시 한 번, 그러나 별 자신감 없이 내놓았다. 2009/2010년 예산에 대한 승인은 새로운 국회의 회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연기되었다. 그러나 실수는 정부만이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제도혁명당(PRI)당과 민주혁명당(PRD)당으로 대표되는 야당 진영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여당을 비난하는 데 있어 매우 일반적인 수위만을 고수하였다.

본고에서는 세계 경제위기가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 및 경제 분야의 결과를 다루었다. 나아가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다루고, 일부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본고는 광범위한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I. 경제위기의 영향력

경제위기의 영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2009년 1사분기 국민총생산은 전년동 같은 기간에 비하여 8.2% 감소하였다. 재무부에서는 2009년 경제 성장률을 -5.5%로 예상하였다. 다른 출처에서는 경기의 하락이 아직 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특히, 《The Economist》지에서는 -6% 정도의 성장을 예측하였으며,

1) 실제로 7월의 중간선거는 국민행동당의 패배와 제도혁명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역주.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epal)에서는 약 -7%, Consultora Ecanal 에서는 -7.7%, OECD에서는 -8%까지 경기 하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민총생산의 하락만을 보면,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다.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 중 브라질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감소가 0.8%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1.5%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위기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은 부분은 수출 분야였다. 이는 멕시코 수출의 85%가 미국 시장을 향하며, 특히 생산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09년 1사분기 제조업분야의 생산은 18% 감소하였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문은 멕시코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부문으로, 2009년 4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2%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생산 또한 하락을 기록하였다.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은 -9.3%, 건설 부문은 -9.1%, 전자 부문은 -4.5% 하락하였다. 수출의 경우, 2009년 1사분기 들어 큰 하락세가 시작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25.2%, 광업 및 가스 분야는 -31.9%, 석유는 -57.7%에 이르렀다. 오직 농업분야만이 동기간 0.4% 정도 상승하였을 뿐이다.

다른 경제 지표들 또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2008년 이미 30% 정도 감소하였지만, 2009년에도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송금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고용의 감소 또한 매우 급격하여 '떼깰라 위기' 이후 수준에 이르렀다. 원유가의 하락(2008년 7월의 40% 수준)은 국가 재정의 주 수입원인 국영석유회사 Pemex의 수익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가정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관광 분야의 경우, 신종플루의 발발 이전 이미 세계 경제위기로 인하여 감소세를 맞이하였다. 4월 말 신종플루의 출현과 그로 인해 이루어진 멕시코의 실질적인 폐쇄조치로 인하여 멕시코 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관광 부문은 매우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에도 멕시코의 호텔과 해변을 찾은 관광객은 매우 적었다.

이러한 사태의 위중함은 실업 분야에 반영되었다. 멕시코통계지리청(INEGI)에 의하면, 멕시코의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멕시코의 실업 기준이 1주일에 1시간도 고용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8년 5월과 2009년 5월의 실업률 지표는

3.24%에서 5.31%로 급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저고용율 또한 6.47%에서 13.17%로 배가하였다. 고용시장의 위기는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부의 농업 분야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부 지방의 산업과 관광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2009년 5월의 자료에 따르면, 북부주(특히, 치와와, 꼬아윌라, 누에보 레온), 중앙지역(D.F.와 멕시코 주), 키타나로오의 관광지구(칸쑤)에서 광범위한 해고가 이루어졌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해외 송금을 받는 국가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송금을 받는 국가이다.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원유 수입에 이어 두 번째 외환 수입원으로, 국민총생산액의 약 25%에 이른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은 계속해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2009년 5월 송금액은 19억 달러로, 이는 23억 달러였던 2008년 5월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세계경제위기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은 전 세계의 어느 지역과도 차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부 지역이 고용감소로 인하여 타격을 받았다면, 치아파스, 캄페체, 따바스코와 같은 빈곤한 동남부 지역은 송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특히 타격을 입었다.

경제위기의 영향은 환율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뻘소화의 가치는 2008년 10월(달러에 대한 뻘소화의 환율이 1:10)부터 2009년 3월(1:15) 사이 50% 정도의 평가절하 이후 안정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단 5일 만에 뻘소화 가치의 14%가 감소하였다. 정부는 뻘소화 가치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하여 매수로 개입하여 일시적인 제동을 거는데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초반 뻘소화 가치 하락은 지속되었다. 뻘소화 가치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보유 달러를 매각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IMF의 신용을 얻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하여야 했다. 그와 같이, 2009년 3월 9일부터 6월 8일 사이 정부는 하루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달러를 매각하였다. 2009년 4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멕시코는 IMF가 “유연신용라인(FCL)”이라는 명목으로 470억 달러를 허가한 첫 번째 국가로 변화해 있었다. 물론 멕시코는 중앙은행의 보유고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게 300억 달러의 외환 스왑을 의뢰하여야만 했다. 2009년 중반부터 달러에 대한 뻘소화의 가치는 1 대 13을 유지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멕시코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4년 빼소화 위기와 NAFTA의 발효 이후 실질 임금은 회복되고 있지 않다. 1990년대 이후 대폭적인 물가상승이 이루어졌으나, 임금은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식료품비의 상승은 특히 인플레이션을 주도하였다. 2009년 1사분기 상승률은 식료품비의 상승률은 3.02%였으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1.28%였다.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옥수수를 소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수입된 식료품의 38% 정도는 곡물, 특히 옥수수여서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멕시코에서는 평균적인 가정의 경우 생활비의 33.6% 정도를 식료품 구입에 사용하며, 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층에서는 46.1% 정도를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 이는 빈곤한 가정일수록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됨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경기 침체는 1994년 빼소화 위기 시기보다 더욱 심각하며, 무엇보다도 더욱 장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1994년 외환 및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멕시코 빼소화의 평가절상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환시장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국제 자본들이 성급하게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임금은 감소하였으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빈곤층은 증대되었다. 빼소화의 평가절하와 수출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인하여 위기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경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되었으나, 1995년 1인당 실질소득은 1994년에 비해 9.2% 감소하였다.

현재의 상황은 이와는 또 다르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감소하였으며, 향후 당분간은 그러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일부 수출업자들은 2010년 미국이 경기 회복으로 인해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강한 연계를 통하여 멕시코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방식이 너무나 단순해 보인다. 실제로, NAFTA의 발효 이후 이러한 계산이 정확하게 결과로서 나타난 적은 없다. 만약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지속된 미국의 경제 호황기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현재와 같은 경제 기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시장은 소비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4년 이후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현격하게 증가하였지만, 멕시코의 경제성장은 겨우 2.8%에 그쳤다. 같은 기간, 멕시코에

서 해외로 유출된 인구는 두 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멕시코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II. 정부의 대응

실질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한 위태로우면서도 참신한 계획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또한 필수적이었다. 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멕시코는 이미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 외채를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 이전 해들에 비해 다소 낮은 성장에 만족하여야 했다. 이 때문에 경제규모와 투자처로서의 상당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성장률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하여야 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에 의하면,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에는 겨우 2.5%에 그쳤다.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이 부상하는 국가들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 자료는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역사적으로 비교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2000년 이래 멕시코의 성장률은 1970년대 평균 성장률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이다.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정부는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만을 운용해 왔다. 지난 해 10월, 정부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진전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무부장관인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는 멕시코가 진퇴양난의 상태임을 인정하였다.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무디스와 같은 신뢰할만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멕시코 경제의 안정을 확신하고 있음을 밝혔다. 얼마 후, 정부는 미국의 경제 회복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외교적 수사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된 직장을 절실하게 찾고 있던 다수의 멕시코 인들에게는 농담처럼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초, 초기의 낙관적인 전망은 우려로 변하였다. 재무부 장관은 “경제가 깊은 정체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금융 부문에 미친 여파는 수출산업 부문에서와 같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경제활동을 진작시

키고 통화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2009년 1월,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체들과 도시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하였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경제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한 국가적 합의”라고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프로그램, 고용 보전을 위한 대책, 기업 지원 대책, 가솔린 가격, 가스 가격, 전기세의 할인, 공공 지출 분야에서의 투명성의 제고.

가솔린 가격의 동결과 가스 가격의 할인은 멕시코 가정들에게 약 10% 정도 도움이 될 것이며, 전기세의 할인 또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이 영향을 미칠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전년도에 가스 가격(10.7%), 가솔린 가격(5.5%), 전기세(15.5%)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발표된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는 없었다. 즉, 태평양에 건설하려 하던 무역 항구 시설이나 북동부 지역에 건설하려 했던 고속도로 등의 예에서와 같이 국가의 외곽 지역에서 공개 입찰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연기되었다. 다른 대책들은 제도적인 혹은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될 수 없었다. 올해 초, 건설 부문이 주요한 하락세를 겪고 있을 때 정부의 도움이 특히 절실했지만, 공사 시행의 중단이나 연기 등으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은 적절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KPMG와 같은 조사기관을 통한 실질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기부양대책이 경제를 재활성화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용보존 프로그램은 노동 분야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업자의 절반가량이 2008년 3사분기와 4사분기 동안 실직하였다는 것은 아직 대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로그램에는 사회보장적인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실직을 할 경우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두 달에서 여섯 달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의 실행을 방해하였던 행정적인 속박과 파벌주의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서의 진전 또한 방해 받고 있으며, 노동 부문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표 또한 이루기 곤란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간을 축소하기로 한 기업들의 임금의 1/3을 부담한다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도는 하루 12.5달러인 최소임금의 3배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는 2009년 1월 15일 이후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기업에게만 주어져서 자동차 부문의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신종플루의 발생 직후, 정부는 조치의 폭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점들은 산업을 재활성화시키고 인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식적인 대응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의존성과 이전 경제위기의 경험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부문이나 관광 산업과 같은 근본적인 분야의 경제 침체는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방해는 지속되었다. 이는 최근 30년간 정부가 자유주의 경제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정치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부문의 축소,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 관련 분야의 유연화, 퇴직연금의 민영화, 식료품과 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 등이다. 실질적인 경제 정책은 현저한 성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 멕시코 특유의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III.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와 금융 분야의 실제적인 구조는 1980년대 초반 시작된 집중적인 자유주의 개혁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82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수입대체산업화 체제에서 정부가 수행하던 능동적인 역할은 수출과 민간 부문의 투자가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자유주의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대통령들은 공적보조금을 삭제하였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였으며,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무역을 자유화하였다. 1994년 NAFTA의 발효는 수출지향적인 전략의 결정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PAN당은 앞선 PRI당에 비해 이 정책을 더욱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지향적인 정책은 낮은 성장지표의 지속이라든가 불평등의 측면에서만 실패한 것 같지는 않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극심한 지역 간 격차, 전략적인 경제 부문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의 부족, 필요한 세수원이 부족과 같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무역의 다각화 이후 경제의 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폭넓은 정책적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로 이루어진 NAFTA

지역은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또한 멕시코에게도 유리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멕시코 북부 지역과 일부 부문에만 집중되었다. 현재까지 산업 발전 부문에서 남부 지방은 소외되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국제경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였다. 또한, 멕시코의 농업은 전혀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특화된 부문도 없다.

경제 모델과 관련된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낮은 조세율과 석유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율이다. 이 두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행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멕시코는 2010년 국가 예산에서 상당한 적자를 메워야만 한다. 재무부는 국가 수입 면에서 이러한 극적인 감소를 겪은 정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의 안정화와 석유 부문 수입에서 발생한 세수의 감소로 인해 2009년 정부수입이 약 4,800억 페소(약 370억불에 해당) 정도 감소하였다. 상황이 좋을 경우에도 약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석유분야의 수입 감소로 인하여 2010년 예산안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테마로 돌아와 보자. 원유의 가치 하락과 생산 감소가 함께 나타나면, 멕시코와 같은 나라의 예산은 지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79년 칸파렐 유전의 원유생산이 시작된 이래, 멕시코 정부 예산의 30~40%는 원유 판매에 의한 것이었다. 최근 공공 수입의 증대는 대부분 높은 원유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60%는 원유 생산 관련 경비로 지출되었다. 2009년 6월 이후 국내 석유 판매와 국제 시장에서의 원유 판매로 인한 수입은 22.2%나 감소하였다. 동시에, 국영석유회사인 Pemex는 석유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한 보유량으로 유명한 칸파렐 유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전들의 보유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7~8년 내에 고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유량이 감소한다고 하여 생산량을 감축시키지는 않고 있다. 멕시코는 또한 새로운 유전 탐사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의 부재, 칸파렐 유전의 고갈, Pemex를 통한 국가 예산의 조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 6위의 원유 수출 국가인 멕시코는 가솔린 소비량의 40%를 수입하여야 하며, 수십 년간이나 새로운 정유소를 건설하지 않았다(이에 칼데론 정부는 새로운 정유공장을 건설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원유 수입만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의 실질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세입 또한 낮아졌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난 몇 달간 15~20% 정도 감소하였다. 현 정부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최근 30년간 있었던 금융 위기와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원 또한 부족하고 단기간 내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이미 발표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수출산업과 관련된 부문은 경제의 중심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수출의 부진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만이 그 이유는 아니다. 실제로, 이는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의 초기부터 멕시코 경제는 그 치료법이 부적절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경쟁의 위기로 인하여 고통 받아 왔다. 기술의 유입과 혁신, 공정의 통합 등 장기적인 측면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투자를 진흥시키는 대신, 이윤의 해외 유출과 단기적인 전략의 시행만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십년간 제조업 분야에서만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은 물론이고 진단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세계경제포럼에 해마다 발행하는 국제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멕시코의 경쟁력 순위는 2001년 60위에서 18계단이나 하락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멕시코는 북미 시장을 지향하는 저가 수출품의 생산의 중심지인 마길라도라 공단으로 인해 유명세를 탔다. 마길라도라 공단의 주요한 산업체들은 주로 미국과의 국경선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나, 해마다 많은 산업들이 내륙 지방으로 진출하고 있다. 마길라도라 시스템은 1965년 당시 대통령이던 구스파보 디아스 오르다스(Gustavo Díaz Ordaz)가 국경지역의 산업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1964년 미국 의회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멕시코에서 운영되는 생산 공장은 관세와 조세의 혜택을 주었다. 가공될 부품들은 수입시 면세혜택을 받고 최종 생산품은 즉시 재수출된다. 생산품이 미국으로 보내질 경우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보다 훨씬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1983년부터,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도입된 이후 마길라도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멕시코 국내에서도 판매가 허용되었다. 마길라도라의 주요 품목은 전자, 섬유 그리고 기계류이다.

장기적인 측면의 발전 모델로서, 마길라도라는 무수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미 긴 시간 동안 여러 지표에서 마킬라도라의 취약성을 나타냈다. 실제로, 마킬라도라 부문이 멕시코 수출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적다. 한편, 특정 부문의 연구와 특화를 강화하여 국가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마킬라도라 기업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많은 경제 활동이 그 자체 내에서만 순환된다면, 멕시코 기업들의 기술적인 측면이 발전하거나 완성될 수 없다. 마킬라도라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1% 정도만이 멕시코에서 생산된다. OECD 회원국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높은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로서, 멕시코는 교육정책과 인력양성 부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두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멕시코는 후진국으로 남아 있었다.

약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석유산업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복합적인 개혁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새삼 느끼게 한다. 최근 몇 년간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러한 자원에서 얻어진 이득은 장기적인 측면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분하게 투입되지도 않았다. 사회기반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고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경기부양책은 단지 일시적인 방편에 그칠 것이다.

여당인 PRI와 PRD는 공식적인 경제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해 왔다. 양당의 다양한 대표들이 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것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멕시코시티 시장인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는 정부의 정책이 불충분하고 비능률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경제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성토했다. PRI의 당수인 베아트리스 빠레데스(Beatriz Paredes) 또한 정책의 방향 선회를 요구하였다. 양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대중을 보호하고 고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좌파 정당인 PRD이 사회 프로그램의 구상과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PRI는 빈곤층에 대한 음식 제공을 실시하고 배급에 관한 법률을 비준할 것을 주장하였다. 두 정당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였다. PRI는 정부 차원의 실업보험을 신설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PRD의 지도부는 금리 인하를 권고하였다. 의회에서 PRD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멕시코시티 시장을 지낸 바 있는 알레한드로 엔시나스(Alejandro Encinas)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부 고용인들의 공공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멕시코에서 주요 공직에 고용된 이들의 임금은 평균보다 훨씬 높다. 선출직인 장급 인사나 공무원들의 월급은 3만 유로에 이르기기도 한다.

2009년 7월 5일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정당들의 정치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을 고려할 때, 깔데론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에도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할 수 있는 정치적 난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선거에서 여당은 상당수의 의석을 잃었다. PRI당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의결권의 36.89%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의회 세력으로 떠올랐다. 2000년과 2006년 선거 결과와 달리 PAN당은 전체 표의 27.8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PRD당은 겨우 12.2%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PRI당의 부활은 설득력 있는 공약 때문이 아니라 여당인 PAN당이나 반대당인 PRD당과는 구분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범죄율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생각도 소용이 없다. 2006년 이후 PAN당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약 범죄조직에 대하여 군을 동원하였다. 마약 범죄조직의 주요 우두머리를 검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수많은 희생자들과 날로 증가하는 치안의 불안정, 그리고 군이 저질은 인권 침해는 의는 결국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선거 참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PAN당의 선거 공약에서 경제위기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반대 진영과, 구조적인 원인에 관한 합의 부족, 위기에 대한 가능한 변명 등으로 인해 201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재정,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한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 뿐 아니라 위기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진단이 나와야 한다. 실상 정부는 케케묵은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의회뿐이다.

IV. 결 론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여파가 조속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통제될

수 없다면, 사회적 불안정성의 위기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06년 대통령 선거의 접전과 의회의 지난 회기 동안 이미 축소된 권력관계에서 정부의 전략적 능력은 현재 더욱 축소되어 의회에서의 PRI당의 영향력 증대로 귀결되었다. 미국 경제는 예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멕시코의 경제가 그러한 추이를 반드시 따를 것 같지는 않다. 1990년대 미국 경제의 호황과 2000년대에 이어진 호경기의 시절 동안 멕시코 경제가 성장한 것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한편, 미국에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대미 [불법] 이주는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2008년 하반기 멕시코에서 유출된 인구 규모는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하여 50%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결국 멕시코에서 적은 일자리를 놓고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소득과 송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견고한 제도를 고려하는 나라들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그러한 전망이 어렵다. 오로지 재정적 시각에서 사고하는 의사 결정권자들은 이전 경제위기를 기억해내고 엉뚱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들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노동자들과 고용안정을 위한 보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냉철하게 말해, 누구라도 이주민들과 송금액이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국경 양측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둡고 마약전쟁이 심각한 상태이다. 근본적인 보호막으로서 구조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실패하였다. 이제 멕시코는 조만간 새로운 사회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멕시코민중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협할 것이다.

(김희순 번역)

참고문헌

Crocoll, Sophie y Susan Steiner, “Armut in Krisenzeiten: Rückblick und Ausblick” en *giga Focus Lateinamerika*, 5/2009.

Dussel Peters, Enrique, “El aparato productivo mexicano. Entre la crisis global y el caos de la política nacional” en *Nueva Sociedad* N° 220, 3-4/2009, pp. 112-124, disponible en <http://www.nuso.org/upload/articulos/3597_1.pdf>.

Moreno-Brid, Juan Carlos, “Mexican Economy Facing the International Crisis,” ideas Conference on Re-Regulating Global Finance in the Light of the Global Crisis,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9 a 12 de abril de 2009.

Ramírez de la O., Rogelio, “México en la crisis global y en su propia crisis: ¿Qué hacer?” Fundación Friedrich Ebert México, julio de 2009.

Stiegler, Ursula, “Wie weit reicht Mexiko: Die politischen Implikationen der mexikanischen Migration in die usa” en *Brennpunkt Lateinamerika* N° 18, 30/9/2005.

《웹페이지》

Banco de México, <www.banxico.org.mx>.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www.eclac.org>.

Ecanal, Economic Analysis for Company Planning, <www.ecanal.com.mx>.

Foro Económico Mundial, <www.weforum.org>.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www.inegi.gob.mx>.

The Economist, <www.economist.com>.

《일간지》

El Economista, 1/7/2009.

El Financiero, 22/6/2009 y 12/8/2009.

El Universal, 27/7/2009.

La Jornada, 28/7/2009.

Proceso, 10/5/2009.